

## 일대학 간호학 전공 학생의 구강건강신념과 구강건강행태

이진희 · 이정현<sup>†</sup>

광주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에스플러스 치과  
(2018년 12월 4일 접수: 2018년 12월 19일 수정: 2018년 12월 22일 채택)

### Oral Health Belief and Oral Health Behaviors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inHee Lee · JungHyeon Lee<sup>†</sup>

*Department of Nursing, Kwangju Women's University, Yesplus Dental Clinic  
(Received December 4, 2018; Revised December 19, 2018; Accepted December 22, 2018)*

**요약** :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구강건강에 관해 알아보고자 시행되었고, 207명을 대상으로 자가 보고식 설문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지난 1년간 치과를 방문한 학생은 64.3% 였고, 치과 방문 이유는 정기검진이 25.9%, 충치치료가 23.5%이었다. 치과를 방문하지 않는 이유는 '덜 중요해서'가 12.6%로 가장 많았고, '치과 가기가 두려워서'가 10.6%로 나타났다. 하루동안 평균 잇솔질 횟수는 3.1회 이었으며 잇솔질 시간은 2~3분이 56.0%를 차지했다. 그러나 치과 방문 의도에 관한 질문에는 '치료 받을 때만'이 51.7%고 가장 많았고, '통증이 있을 때만'도 10.1%나 되었다. 구강교육을 받을 용의에 대해서는 54.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구강교육 희망내용으로는 '미백'이 34.5%로 가장 많았고, '구취예방'이 19.2%이었다. 구강건강정보 획득 경로로는 '인터넷'이 42.0%로 가장 많았고, '가족이나 친구'가 25.6%로 나타났다. 구강건강신념 중 감수성은 2.47점, 심각성은 2.00점, 유익성은 4.03점으로 나타났다. 치과치료가 필요했지만 치료를 받지 않은 학생에 비해 치료받은 학생에서 구강건강신념이 높게 나타났다( $p < .001$ ), 충치가 없는 학생에 비해 충치가 있는 학생에서 구강건강신념이 높게 나타났다( $p < .001$ ). 충치 개수와 감수성( $r = .330, p = .002$ ), 심각성( $r = .25, p = .019$ )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구강건강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 구강건강신념, 구강건강행태, 방문의도, 희망교육내용, 간호학생

**Abstract**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the information for the promotion of oral health in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were 207 in female students for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The percentage of subject to visit dental clinic was 64.3%, to Regular checkup was 25.9%, cure of caries was 23.5% for last one year. The percentage of reasons not treated 'less importance' were 12.6%, 'fear of the dental clinic' was 10.6%. The average number of brushing teeth were 3.1. 56.0% students brush their teeth for two ~ three minutes. But intention of visit to the dentist were 'only when treated' was 51.7%, 'only when there is pain' was 10.1%. The intention of oral

<sup>†</sup>Corresponding author  
(E-mail: cico11@naver.com)

education was 54.6%, the content of the desired education 'whitening' were 34.5%, 'prevention of bad breath' was 19.2%. Dental health information acquisition path 'internet' were 42.0%, 'family or friends' was 25.6%. Susceptibility was 2.47 points, severity was 2.00 points, benefit was 4.03 points in oral health belief. Compared to students who needed dental treatment but did not receive treatment, oral health beliefs were higher among those who were treated ( $p < .001$ ), students with cavities showed a higher level of oral health belief than those without cavities ( $p < .001$ ). There was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number of caries' and susceptibility ( $r = .330$ ,  $p = .002$ ), severity ( $r = .25$ ,  $p = .019$ ). The result should be reflected in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oral health care.

*Keywords* : Oral Health Belief, Oral Health Behaviors, Intent to visit, Requirement content, Nursing Students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에 대해 “질병에 이환되지 않고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라고 정의하였다(WHO, 1996). 또한 건강의 개념은 정신작용과 사회생활에 장애가 없는 약안면 구강조직기관의 상태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구강건강도 건강의 필수요소라 하였다 [1]. 이처럼 오늘날에는 건강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치아와 구강상태는 건강의 개념으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2].

대학생은 미성년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과도기 [3]로서 이 시기에 형성된 구강건강인식이나 행위는 성인기의 구강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구강건강관리능력을 배양하고 올바른 습관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그러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시기에 해당하는 20~24세 영구치 우식 유병률은 39.2%로 높게 나타났고, 지난 1년간 치통경험률은 44.1%로 조사되어 상당수가 구강질환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잠자기 전 칫솔질 실천율은 59.3%, 치실 사용률은 20.3%, 치간 칫솔 사용률은 14.1%로 조사되었다 [5].

구강건강신념모형은 건강신념 모형을 구강병 예방에 적용하였으며 그에 따른 행위와 관련된 요인을 설명하는 것이다 [6]. 개인의 심리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하며, 태도와 신념은 행동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올바른 구강건강행위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7].

구강건강신념모형을 이용하여 임산부 [8], 청소년 [9], 치위생과 학생 [10] 등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신념과 구강 보건행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11], 특히 대상자의 통합적 간호를 담당하게 될 간호 대학생은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적절한 방법을 터득하고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효과적인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생의 구강건강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고,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구강건강신념, 구강건강행태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치과 방문의도, 희망교육내용을 파악한다.
- 3) 구강건강행태에 따른 구강건강신념을 파악한다.
- 4) 일반적 특성과 구강건강신념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구강건강신념, 구강건강

행태, 방문의도, 희망교육내용을 파악하고 구강건강행태에 따른 구강건강신념 정도와 일반적 특성과 구강건강신념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K대학에서 간호학 전공 중인 여학생 207명을 대상으로 자가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강건강신념은 감수성, 심각성, 유익성의 3가지 영역을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 2.3.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5월 14일부터 5월 25일 까지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조사의 목적을 설명하고 비밀보장, 익명성, 참여 거부, 참여 중단 가능 등을 설명하고 연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자가 보고식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10~15분 정도였고, 소정의 답례품을 전달하였다.

## 2.5. 연구도구

### 2.5.1. 구강건강신념

구강건강신념 도구는 Kegeles(1963)의 구강건강신념모형을 오 [12] 가 수정 보완한 것으로 감수성, 심각성, 유익성, 중요성, 장애성 요소로 구분되고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소를 더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오의 도구를 사용한 이 [13] 의 연구에서 신뢰도가 낮은 중요성, 장애성 문항을 제외한 감수성, 심각성, 유익성 문항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이보람의 연구에서 Chronbach's  $\alpha = .753$ 이었고 본 연구에서 Chronbach's  $\alpha = .791$ 이었다.

### 2.5.2. 구강건강행태

설문조사 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간 구강진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는지를 포함하여 방문 목적과 치석제거 유무, 치과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와 충치 유무, 잇솔질 형태 등을 조사하였다.

## 2.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강건강행태는 실수와 백분율을 구

하고, 구강건강신념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신념은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과 구강건강신념과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1.1세였고, 일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한번도 먹지 않는다'가 21.7%, 하루 수면시간은 '6시간 이상 7시간 미만'이 38.1%로 가장 많았고, 스트레스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68.6%, 현재 질병은 '없음'이 87.0%, '악관절 질환'이 4.3%로 나타났다.

### 3.2. 구강건강행태, 방문의도, 희망교육내용

지난 1년 동안 치과 방문 경험이 있는 학생은 64.3%이었고, 치과 방문 이유는 정기검진이 25.9%, 충치치료가 23.5%이었고, 치과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는 '다른 문제들에 비해 덜 중요하다'고 느껴서'가 12.6%, '치과진료를 받기가 무서워서'가 10.6% 이었다. 치석제거 경험이 있는 학생은 47.3%이었고, 잇솔질 평균 횟수는  $3.1 \pm 0.96$ 회 이었으며 잇솔질 시간은 2~3분이 56.0%, 3~4분이 20.8% 이었다. 잇솔질을 안하는 이유는 '귀찮아서'가 50.0%, '깜빡해서'가 42.6%로 가장 많았고, 잇솔질 대체방법으로는 '물로 헹구기'가 36.6%, '껌 씹기'가 30.7%이었으며 41.1%가 충치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치과 방문 의도에 관한 질문에는 '치료 받을 때만'이 51.7%고 가장 많았고, '통증이 있을 때만'도 10.1%나 되었다. 구강교육을 받을 용의에 대해서는 54.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형태는 '유인물'이 58.0%, '대면교육으로'가 28.5%이었다. 구강교육 희망내용으로는 '미백'이 34.5%로 가장 많았고, '구취예방'이 19.2%, '치아우식'이 14.6% 순이었다. 구강건강정보 획득 경로로는 '인터넷'이 42.0%로 가장 많았고, '가족이나 친구'가 25.6%, '대중매체'가 15.9%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07)

Characteristics	Category	N(%)
Age	<20	71(34.3)
	20≤, <24	122(58.9)
	24≤, <30	8(3.9)
	≥30	6(2.9)
Breakfast (per week)	0	45(21.7)
	1~2	55(26.6)
	3~4	45(21.7)
	5~6	35(16.9)
	7	27(13.1)
Sleeping time (per day)	<5	12(5.8)
	5≤, <6	32(15.4)
	6≤, <7	79(38.1)
	7≤, <8	56(27.1)
	≥8	28(13.6)
Stress level	low	14(6.8)
	middle	142(68.6)
	high	51(24.6)
Present disease	none	180(87.0)
	temporomandibular joint disease	9(4.3)
	gum disease	4(1.9)
	infectious disease	2(1.0)
	else	10(4.8)

Table 2. Oral Health Behaviors, Intent to visit, Requirement content (n=207)

Oral Health Behaviors	Category	N(%)
Experienced dental visit in the past year	Yes	133(64.3)
	No	74(35.7)
Reason of visit (N=162)	Regular checkup	42(25.9)
	Cure of caries	38(23.5)
	Orthodontic	36(22.2)
	Gum disease	26(16.1)
	Else	32(12.3)
Reasons not treated	Of less importance	26(12.6)
	For fear of the dentist	22(10.6)
	For fear of absence	16(7.7)
	Economic reasons	9(4.3)
	At a distance	6(2.8)
Remove oral plaque experienced over the past year	Yes	98(47.3)
	No	108(52.2)

Oral Health Behaviors	Category	N(%)
Number of brushing teeth	1	11(5.3)
	2	35(16.9)
	3	109(52.6)
	≥4	52(25.2)
Time of brushing teeth (minute)	<1	5(2.4)
	1≤, <2	35(16.9)
	2≤, <3	116(56.0)
	3≤, <4	43(20.8)
	4≤, <5	7(3.4)
	>5	1(0.5)
How to replace brushing (Duplicate Response)	Rinse with water	75(36.6)
	Chewing gum	63(30.7)
	Using a gallet solution	58(23.6)
	Nothing	29(11.8)
	Eating candy	20(8.1)
	Else	1(0.4)
Intent of visit to the dentist	Only when treated	107(51.7)
	Regularly	79(38.2)
	Only when there is pain	21(10.1)
The intention of oral education	Yes	113(54.6)
	No	94(45.4)
Requirement content (Duplicate Response)	Whitening	90(34.6)
	Prevention of bad breath	50(19.2)
	Dental caries	38(14.6)
	Remedial treatment	24(9.2)
	Dental common sense	23(8.8)
	Orthodontics	19(7.3)
	A dental disease	15(5.6)
	Else	2(0.7)
Dental health information acquisition path	Internet	87(42.0)
	Family, friends	53(25.7)
	Mass media	33(15.9)
	At school	20(9.7)
	Else	9(4.3)
	In a book	5(2.4)

### 3.3. 구강건강신념

구강건강신념 중 감수성은 2.47점, 심각성은 2.00점, 유익성은 4.03점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Oral Health Belief

Variables	Mean	SD
Susceptibility	2.47	0.71
Severity	2.00	0.80
Benefit	4.03	0.60

**3.4. 구강건강행태에 따른 구강건강신념**

치과치료가 필요했지만 치료를 받지 않은 학생에 비해 치료받은 학생에서 구강건강신념이 높게 나타났고, 충치가 없는 학생에 비해 충치가 있는 학생에서 구강건강신념이 높게 나타났다(Table 4).

**3.5. 일반적 특성과 구강건강신념과의 상관관계**

일반적 특성과 구강건강신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충치 개수와 감수성( $r=.330, p=.002$ ), 심각성( $r=.25, p=.019$ )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4. 논의**

본 연구에서 지난 1년 동안 치과를 방문한 학생은 64.3%였는데 이는 치위생 전공 학생을 대상 [13] 으로 한 연구(62.4%)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고, 방문 목적은 정기검진(25.9%)이 가장 많았고 충치치료(23.5%)가 그다음 순이었는데 이는 치위생 전공 학생에서 1순위 충치치료(43.3%), 2순위 정기검진(29.3%)과 다소 차이가 있었고, 20~40대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14] 에서 1순위 치석제거(39.0%), 2순위 충치치료(34.9%)와도 차이를 보였으며 일부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15] 에서도 '치료'목적(72.0%)이 '예방'목적(28.0%)보다 매우 높게 나타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난 1년간 치석제거 유무에서는 있는 학생이 47.3%로 치위생 전공 학생의 80.3%보다

현저히 낮았다.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한 원인으로 '다른 문제들에 비해 덜 중요하다고 느껴서'가 12.6%, '치과진료를 받기가 무서워서'가 10.6%, '학교에 결석할 수가 없어서'가 7.7% 순이었는데 이는 치위생 전공 학생에서 '학교에 결석할 수가 없어서'(30.2%), '다른 문제들에 비해 덜 중요해서'(22.4%), '치과진료를 받기가 무서워서'(13.5%)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잇솔질 평균 횟수는 3.1회이었는데 이는 대학생을 대상 [16] 으로 한 연구(2010)에서의 평균 3.16회와 유사하였다.

치과 방문의도에서는 '치료 받을 때만'이 51.7%로 가장 많았고, '통증이 있을 때만'도 10.1%나 되었는데 방문의도에 관한 선행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어 비교하기 어려우나 사후 방문 방향이 아닌 '정기검진' 등 예방 목적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희망 교육내용으로는 '미백'이 34.5%로 가장 많았고, '구취예방'이 19.2%, '치아우식'이 14.6% 순이었는데, 이는 대학생을 대상 [16] 으로 한 연구(2010)에서의 '치아우식병 예방 및 치료'(1순위), '미백'(2순위), '구취예방'(3순위)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성별과 계열을 고려하여 비교하더라도 '여자'와 '간호계열'에서 각각 '치아우식병 예방 및 치료'가 1순위였던 이전의 연구 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구강건강정보 획득 경로로는 '인터넷'이 42.0%로 가장 많았고, '가족이나 친구'가 25.6%, '대중매체'가 15.9%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생을

Table 4. Oral Health Belief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Untreated Experience		Dental caries	
	Yes	No	Yes	No
Oral Health Belief	50.31±7.49	45.21±7.72	50.76±7.11	44.31±7.50
<i>p</i>	<.001		<.001	

Table 5. Correlation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Oral Health Belief

	Number of dental caries	
	<i>r</i>	<i>p</i>
Susceptibility	.33	.002
Severity	.25	.019
Benefit	-.04	.686

대상 [16] 으로 한 연구(2010)에서의 '학교 수업을 통하여'(1순위),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를 통하여'(2순위), '팜플렛이나 책자를 통하여'(3순위),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4순위)와 차이가 있었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16년 조사한 연구 [17] 에서도 'TV나 대중매체'를 통하여'가 1순위로 나타난 것과도 비교된다. 계열별 비교에서도 '간호계열'의 1순위 경로는 '학교 수업을 통하여' 이었는데 시대 변화에 따라 인터넷 접근을 통한 정보 검색에 더 익숙하게 된 변화라고 사료된다.

구강건강신념 중 유의성은 4.03점, 감수성은 2.47점, 심각성은 2.00점으로 나타났는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18] 에서 유의성이 3.99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감수성 2.53점, 심각성 2.01점 순이었으며, 일부지역 20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19] 에서도 유의성 3.87점, 감수성 2.84점, 심각성 2.26점 순이었던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감수성과 심각성 점수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20] 에서는 심각성이 2.23점으로 본 연구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가 대학생으로 연령대가 달라 구강질환에 이환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심각성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치과치료가 필요했지만 치료를 받지 않은 학생에 비해 치료받은 학생에서 구강건강신념이 높게 나타났는데 동일한 항목을 조사한 연구가 적어 비교하기 어려우나 치위생 전공 학생을 대상 [13] 으로 한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고, 충치가 없는 학생에 비해 충치가 있는 학생에서 구강건강신념이 높게 나타난 것도 치위생 전공 학생에서의 결과와 같았다. 충치 개수와 감수성, 심각성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도 치위생 전공 학생을 대상 [13] 으로 한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구강건강증진을 포함한 전인간호를 제공하게 될 간호학생에게 구강건강신념과 구강건강행태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은 필수적이고 이로써 구강건강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을 개발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인간호를 담당하게 될 간호 대학생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구강건강신념과 구강

건강행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지난 1년간 치과를 방문한 학생은 64.3%였고, 치과 방문 이유는 정기검진이 25.9%, 충치치료가 23.5%이었다. 치과를 방문하지 않는 이유는 '덜 중요해서'가 12.6%로 가장 많았고, 치과 방문 의도에 관한 질문에는 '치료 받을 때만'이 51.7%로 가장 많았다. 구강교육 희망내용으로는 '미백'이 34.5%로 가장 많았고, 구강건강정보 획득 경로로는 '인터넷'이 42.0%로 가장 많았다. 구강건강신념 중 감수성은 2.47점, 심각성은 2.00점, 유의성은 4.03점으로 나타났다. 구강건강행태에 따른 구강건강신념 정도를 보면 치과치료가 필요했지만 치료를 받지 않은 학생에 비해 치료받은 학생에서 구강건강신념이 높게 나타났고, 충치 개수와 감수성, 심각성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일개 간호학과에서 실시되어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고,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학생의 구강건강개선에 관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 References

1. E. J. Kim, A study on the belief and the behavior in dental health : Focused on in-hospital patients, Dankoo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Legal Studies and Public, Administration Master's Thesis, (2001).
2. Miilumpalo S, Vuori I, Oja P, Pasanen M, Urponen H., Swef-rated health status as a health measure: the predictive value of self-reported health status on the use of physician services and on mortality in the working-age population. *J Clin Epidemiol*, 50(5), 517-528, (1997).
3. I. J. Lee, H. K. Choi, *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NaMam Publishers, (2000).
4. Y. J. Jang, J. A. Jung, E. S. Jeon, "Relation Factors of Oral Health Behavior of Junior College in Jeollanamdo", *Korean Academy of Dental Hygiene Education*, Vol.6, No.4 pp. 387-402, (2006).

5. Fif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3).
6. Y. B. Oh, H. S. Lee, S. N. Kim, "Children's dental health behavior in relation to their mothers' socioeconomic factors and dental health belief", *Journal of Korean Academic Dental Health*, Vol.18, No.1 pp. 62-83, (1994).
7. B. J. Jang, "Study on dental health belief and dental health behavior in the high grade students of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8, No.3 pp. 163-168, (2008).
8. M. N. Kim, D. S. Lim, M. H. Kim, A. R. Kim, S. I. Kim, Y. S. Ahn, "Effect of health belief factor on oral health related behavior in pregnant woman",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15, No.2 pp. 129-137, (2015).
9. H. M. Park, "Effect of oral health belief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s' oral health behavior on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among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10, No.2 pp. 133-144, (2016).
10. B. R. Lee, Y. H. Lee, "Oral health beliefs and oral health behaviors related factors of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17, No.3 pp. 431-440, (2017).
11. B. R. Lee, Y. H. Lee, "Oral health beliefs and oral health behaviors related factors of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17, No.3 pp. 431-440, (2017).
12. Y. B. Oh, Childrens's dental health behavior in relation to their mothers'socioeconomic factors and dental health beliefs, Graduate School of Wonkwang University, A Doctoral Dissertation, (2001).
13. B. R. Lee, The Effect of Oral Health Belief on Oral Health Behaviors in Dental Hygiene Student, Graduate School of Wonkwang University, A Doctoral Dissertation, (2015).
14. J. Y. Jang, "The Correlation Study on Oral Health Behavior toward Oral Health Belief",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9, No.1 pp. 133-148, (2007).
15. H. R. Park, S. J. Moon, "Survey on the Knowledge Level of Oral Health and Prevention Behaviors of some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9, No.5 pp. 485-490, (2009).
16. S. H. Park, Comparison on Oral Health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in Jeollabuk-do Korea, Graduate School of Wonkwang University, Administration Master's Thesis, (2010).
17. S. U. Yoon, S. J. Jang, "Convergent relationship between oral health knowledge and oral health behavior of health-related and health-unrelated majors university students in some areas", *Journal of the Korean Convergence Society*, Vol.7, No.1 pp. 97-104, (2016).
18. S. A. Lim, "Convergent Research on Oral Health Beliefs in Som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8, No.5 pp. 37-43, (2018).
19. S. D. Kim, H. K. Ryu, S. S. Choi, "A Study on The Oral-Health Belief and Oral-Health Behavior of Some Twenties in Busan and Gyeongnam province",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ygiene*, Vol.12, No.2 pp. 85-96, (2010).
20. M. H. Lim, "A study on the oral-health belief and oral-health care of company employe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8, No.4 pp. 205-217, (2008).